한국불교의 원류 알려거든 경주 남산을 가라

"신라를 알고프면 경주에 가 살아라. 겨레의 혼을 알고 싶으면 서라벌의 흙냄새를 맡으라. 한국 불교의 원류를 찾고자 한다면 경주 남산에 가 보아라"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사가 우현 고유섭 선생이 그가 아끼던 제자 윤경렬에게 한 말이다. 우현 선생은 〈경주 기행의 일절〉이라는 글에서 조선의 학고와 문화인과 백성에게 힘주어 강조했다.

선구적 문화사가요, 미학자요, 미술사가였던 우현 선생은 경주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민족에 대한 자랑과 사랑, 민족정신을 소신껏 갈파시킨 분이었다. 멀리 송도(개성)에 머물면서 우현 선생은 경주와 경주의 문화유적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우리 민족이 취할 바를 지남하려 했다.

경주 남산은 옛 신라의 도읍이던 서라벌 남쪽에 솟아 있는 산이다. 경주에서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높은 봉우리는 468m 높이의 금오봉이고, 그 남쪽에 높이 494m 되는 고위봉이 솟아 있다. 이 두 봉우리에서 흘러내리는 40여 계곡과 뻗어 내린 산줄기들을 모두 합쳐 경주 남산이라고 부른다.

남산에는 신라시대의 수많은 불상과 탑 등 불교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최근세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종의 문화재가 아울러 밀집·분포하고 있다. 또한 건국에서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 천년 동안의 신라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자료와 유물과 자연환경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다. '남산'은 하나의 단위문화재로서 단일지역에 670여 개소(건)의 문화재가 서로 어우러져 집중된 우리나라 불교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신라의 영산이요 우리 민족의 성소이다. 산 전체가 야외법당이요 성지인 셈이다.

남산에서는 국보 제312호 칠불암마애불상군을 비롯해 보물 제63호 배동석조여래삼존입상 제124호 남산리삼층석탑 제136호 미륵곡석조여래좌상 제186호 용장사곡삼층석탑 제187호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제198호 불곡마애여래좌상 제199호 신선암마애보살반가상 제201호 탑곡마애불상군 제666호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제909호 남간사지당간지주 제913호 용장사지마애여래좌상 제1188호 천룡사지삼층석탑을 만날 수 있다. 사적으로는 제1호 포석정지 제22호 남산성 제138호 서출지 제172호 오릉 제173호 일성왕릉 제186호 정강왕릉 등 14개소를 제19호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 등 지방유형문화재 11점이 모여 있다.

골짜기마다 불상이 130여 기 탑이 100여 개 등이 있는 경주 남산은 민중의 손에 의해 바위마다 새겨지고 솟아난 문화재와 수려한 경관으로 2000년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됐다.

경주 남산을 오르는 여러 코스 가운데 신라 시대 유적을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코스는 삼불사에서 바둑바위까지 이르는 길이다. 어귀에 3개의 왕릉이 있어 삼릉계라고도 불린다. **조동섭 기자**

경주 남산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야외성지이다. 골짜기마다 불보살을 향한 민중의 서원이 깃들어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서원·정진 설화 산 전체가 야외법당이며 성지

경주 남산의 그 많은 유적들의 흔적은 누구나 찾으면 볼 수 있음은 물론,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여유를 갖는다면 남산에 흩어져 깃들고 있는 많은 노래나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향가도 있고 기막힌 설화들도 곳곳에 흩어져 있다. 모르고 넘으면 단지 경주 남쪽에 있는 야트막한 산일뿐이다. 그러나 알고 넘으면 구구절절 마음을 두드리는 사연들이 남산자락 곳곳에 서려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박대성 화백이 그린 모란꽃 모양의 '남산(2010년 作)'

수행하는 처자 만물이 보호한 열반골

옛날 신라의 고관집 외동딸이 꽃다운 나이에 이르자 뭇남자들이 돈과 권력으로 그녀를 유혹하며 성가시게 굴었다. 마침내 처녀는 아무도 모르게 삭발한 채 속세를 떠나 부처님 세계인 열반에 살 것을 발원했다. 갱의암에 이르러 처녀가 화려한 옷을 벗고 잿빛 먹물옷으로 갈아입자 산짐승들이 길을 막고 살쾡이가 등을 구부린 채 위협했다. 간사스런 여우, 심술궂은 산돼지, 무서운 귀신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물리친 처녀는 계곡 암자에 이르러 정진에 열중했다. 계곡에서 처녀가 목욕을 하자 이무기가 덮칠 듯 산 위에서 위협했다. 그러나 큰곰이 부처님을 동경하여 정진하는 처녀를 보살펴 주었다. 거북이도 눈을 부릅뜬 채 엎드려 처녀 곁을 지키고 있었다.

드디어 정진을 마친 처녀가 부처님 세계로 향하는 산등성이로 올라서자 똥무더기가 처녀를 가로막았지만 진리의 마음을 깨친 처녀는 더러움도 포용한 채 열반의 세계로 향했다. 멀리 산마루에서 할머니가 성도한 처녀를 반가이 맞이하고 있었다. 처녀는 할머니를 따라 열반의 세계인 수미산으로 들어갔다. 이 골은 이 같은 전설이 깃든 열반골로 불린다. 이 골엔 인공 조각품이 하나도 없다. 하늘이 만든 갖가지 조형물이 너무나 기묘해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고 한다. 바위에 열반의 신앙을 조화시킨 신라인의 지혜가 걸작이다.

500여m 두 봉우리 사이 40여 계곡
사이사이 곳곳 산재한 문화재마다
천년세월 비바람속 간직한 설화있어

현처 덕에 두 거사 서방정토가다

신라 문무왕 때 광덕과 엄장이 살았다. 광덕과 엄장 두 사람은 아주 막역한 친구로서 "먼저 극락으로 간 사람이 알려 주어야 한다"는 맹세를 하고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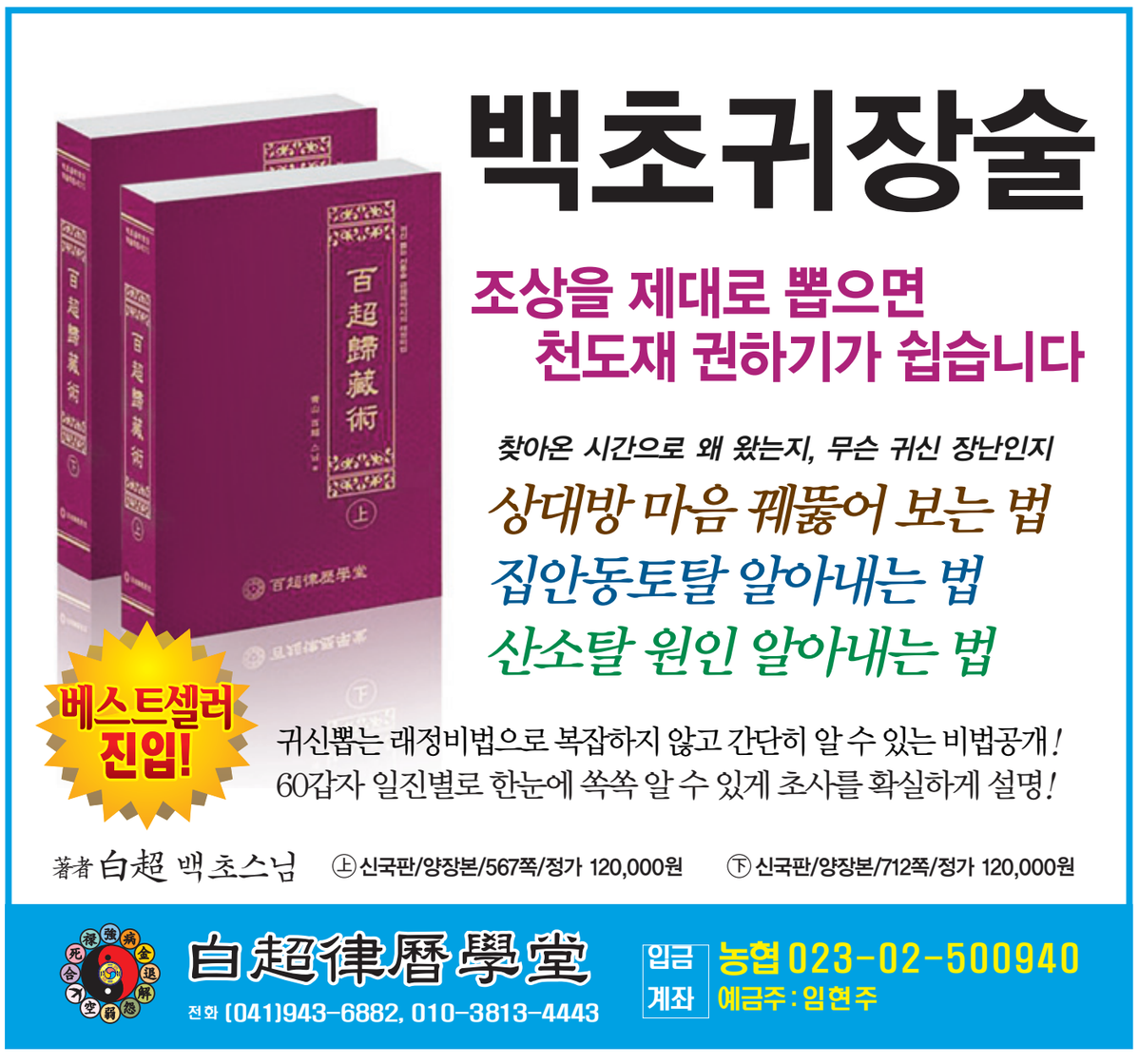
"나는 이미 서방정토로 가게 되었네. 빨리 나를 쫓아오게."

어느 날 엄장은 광덕의 소리를 꿈속에 듣고 달려가 장사를 지냈다. 장사를 지낸 뒤 엄장은 광덕의 아내를 유혹했다.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자기와 함께 살자고 하니 광덕의 아내도 좋다고 허락했다. 그 때부터 소위 동거생활에 들어갔는데, 밤이 되어 부부관계를 갖기를 청하면 광덕의 아내는 "당신이 정토를 구하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 고기를 구하는 격"이라면서 나무랬다. 이 나무람을 듣고 엄장은 광덕이 도를 닦아 정진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용맹정진했고, 결국 서방정토에 갈 수 있었다. 광덕의 처가 두 사람을 서방정토에 보낼 수 있었던 원력을 가진 것 만큼이나, 그를 통해 깨달음을 갖고 정진했던 광덕과 엄장 또한 큰 인물이라 하겠다. 그들이 정진했던 터가 바로 남산이었으니 남산의 정기 또한 대단하다.

충담이 차 올리던 불상

삼화령은 남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낭만적인 곳이다. 경덕왕 때 충담이란 스님이 해어져 누빈 옷을 입고 망태기를 지고 길을 가다가 임금님 앞에 불려 나간다. 어디에서 오는 중인가를 묻는 임금님에게 "소승은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남산 삼화령에 있는 미륵세존께 차를 달여 드립니다. 지금도 차를 올리고 막 돌아오는 길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차를 달여 차 공양을 드린다는 바로 그 삼화령이 남산에 있고, 지금은 경주박물관으로 옮겨다 놓은 삼화령 삼존석불이 바로 그 때 충담 스님으로부터 차 공양을 받던 그 석불이라고 추정된다. 충담 스님은 향가를 잘 짓기로 이름이 나 있었는데 임금의 청을 들어 '안민가' 한 수를 읊고 갔다.

원왕생가

광덕의 처

달님이시여 이제
서방까지 가시어서
무량수 부처님 앞에
말씀 이르시다가 사뢰어 주소서.
다짐 깊으신 부처님께 우러러
두 손 모두옵고
원왕생 원왕생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음을
사뢰어 주소서.
아으! 이몸 버려두고
사십팔 대원이 이룩될까 저어라.